

여러분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멸종위기 동물들을 찾아서 구해야 합니다. 동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들의 숫자를 더해서 10이 되면, 안전한 곳으로 데려주세요! 열 마리의 동물을 먼저 구해낸 사람이 승리합니다!

메모리 아일랜드는 2~4인이 즐길 수 있는 메모리/연산 게임입니다. 숫자의 합으로 10을 만든 뒤, 카드를 열 장 먼저 모으면 승리합니다.



게임 구성물

카드 48장 : 1 (8장), 2 (6장), 3 (5장), 4 (5장), 5 (4장), 6 (4장), 7 (3장), 8 (3장), 9 (3장), 10 (7장)

게임 준비

카드를 잘 섞어 뒷면으로 6X8 형태로 펼쳐 놓습니다. 가장 최근에 섬을 다녀 온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게임 진행

- 자신의 차례에 원하는 카드를 선택해서 하나씩 뒤집어 공개합니다.
- 공개한 카드들의 합이 10이 되는 즉시 공개한 카드들 모두를 획득하고 차례를 마칩니다. 획득한 카드들은 숫자와 장수가 보이도록 자신의 앞에 늘어 놓습니다.
- 공개한 첫 카드가 '10'이면 즉시 그 카드를 획득하고, 한 번 더 차례를 진행합니다 (공개한 첫 카드가 또 '10'이면 한 번 더 차례 진행).
- 공개한 카드들의 합이 10이 넘으면, 즉시 카드들을 그 자리에 뒷면으로 뒤집어 놓고 차례를 마칩니다.
- 현재 사람이 차례를 마치면, 시계 방향으로 다음 사람이 차례를 진행합니다.

예시 1) 처음 공개한 카드가 '5', 다음이 '2', 다음이 '3'입니다. 5+2+3=10 이므로 공개한 카드 3장을 모두 가져와 자신의 앞에 놓은 뒤 차례를 끝냅니다.

예시 2) 처음 공개한 카드가 '4', 다음이 '7'입니다. 4+7=11로 10을 넘었기 때문에 즉시 차례를 끝냅니다. '4'와 '7'은 그 자리에 뒤집어 놓습니다.

예시 3) 처음 공개한 카드가 '10'입니다. 그 카드를 가져와 자신의 앞에 놓고, 차례를 한번 더 합니다.

게임 종료

2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이 달성되면 즉시 게임이 끝납니다.

- 누군가 자신의 앞에 정확히 10장의 카드를 놓으면, 그 플레이어의 승리로 게임이 끝납니다.
- (한 명 혹은 여러 명에 의해) '10' 카드 7장이 모두 획득되면 즉시 게임이 끝납니다. 이때는 자기 앞에 놓은 카드 장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카드 장수가 같다면 '10' 카드가 더 많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10' 카드 장수도 같다면 공동으로 승리합니다.

중요! 어떤 경우에도 카드를 10장 넘게 가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신의 앞에 놓은 카드가 8장이면 더 가져올 수 있는 카드는 2장입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어 카드 2장을 공개했는데 합이 10이 안된다면, 이번 차례에는 승리할 수 없으며, 그렇다 해도 합이 10 이상일 때까지 계속 공개합니다. 공개한 카드의 합이 10 이상이 되면 즉시 카드들을 모두 뒤집어 놓고 차례를 마칩니다. 만약 현재 가진 카드가 8장이고, 자신의 차례가 되어 공개한 첫 카드가 '10'이었다면 획득한 카드가 총 9장이 됩니다. 따라서 승리하려면 '10' 카드를 찾아야 합니다.

속련자 규칙

다음 2가지 규칙을 각각 혹은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없는 섬 : 게임 준비 시 6x8이 아닌 무작위 형태로 배치해 놓습니다.

행운이 함께! : 공개한 카드들의 합이 10이 되는 즉시 공개한 카드를 획득하고 한 번 더 차례를 진행합니다. 운의 요소가 더 많아지며 평균적으로 게임이 빨리 끝납니다.

메모리 아일랜드의 동물들

메모리 아일랜드의 동물들은 멸종위기종들입니다.

환경오염과 밀렵으로 인해 사라져 가는 동물들을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1. 흑백몽도리여우원숭이 : 마다가스카르섬에 살며 현존하는 여우원숭이들 중 가장 커서, 키는 100~120cm 몸무게는 3.1~4.1 kg에 달한다. 과일이나, 꽃 꿀, 꿀, 잎, 씨앗등을 먹는 초식동물이다. 크고 신 목욕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다. 임신기간이 짧고, 한 번에 여러마리의 새끼를 낳으며, 성숙 시기가 빠르다.



2. 푸른바다거북 : 바다거북은 파충류인데, 바다에 사는 파충류중 종류가 훨씬 적다. 수명이 매우 긴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100년 이상은 죽어 산다고 한다. 바다거북은 보통 한 번에 약 100개의 알을 낳지만, 평균적으로 동지에서 나온 알들중 한 마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할 수 있다.



3. 천산강 : 포유류 중에서 덩껌질을 가진 동물이다. 천산강이라는 이름은 '산 을 뚫는 갑옷' 을 뜻한다. 주둥이가 뾰족하고 이가 없어서 혀로 개미를 찾아 먹는다. 천산강류는 몸에 큰 비늘이 있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열대 지역에 분포한다. 야생성 동물로, 잘 발달한 후각을 이용하여 곤충들을 찾아낸다. 천산강은 주로 낮 동안에는 몸을 덩껌째 채 잠을 잔다.



4. 산양 : 산양은 소과 양속에 속하는 우제목(偶蹄目)의 일종이다.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한국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 동부하고 북부 지역의 산악 지대에 서식한다. 대한민국에 서식하는 산양은 천연기념물 217호 및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보호받아 지금은 조금 회복되어 1000여 마리가 생존해 있다.



5. 크낙새 : 딱따구리목 딱따구리과의 새로 흰배딱따구리의 아종이다. '크낙새' 또는 '클락새'라는 이름은 새가 '크낙 크낙' 또는 '클락 클락' 하고 운다고 해서 붙여졌다. 긴 부리로 나무를 쪼아 속에 든 벌레를 잡아먹는다. 대한민국에서는 천연기념물로 보고하고 있다. 1962년 국립수목원의 크낙새 서식지를 천연기념물 제11호로, 1968년 크낙새를 제19호로 지정하였다. 2021년 현재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에 포함되어 있다.



6. 사막비개구리 : 사막비개구리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나미비아의 해안가 사막에 서식하고 있다. 소형 양서류이며 주 먹이는 다른 동물의 배설물 속에 들어 있는 딱정벌레와 같은 애벌레이다. 현 시점에서 서식지 파괴 위험에 처해 있으며 국제자연보존연맹 (IUCN)은 이 개구리를 '취약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7. 북극곰 : 성체 수컷의 몸무게는 대략 350 ~ 700kg이며, 암컷은 그 절반 정도이다. 영하 40도의 추위, 시속 120km의 강풍도 견뎌내며, 뛰어난 생존력으로 추운 환경에서도 번성한다. 대부분의 북극곰은 땅에서 태어나지만, 태어난 뒤에는 주로 바다에서 보낸다. 북극곰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십 년 내로 생활 터전과 주식인 물범 사냥터인 북극의 얼음층이 녹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멸종 위기에 처해있는 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8. 검은코블소 : 몸길이는 약 3m, 몸무게는 1.5m 정도이다. 코 부분의 볼은 2개 가 있으며 앞볼은 최대 130cm, 뒷볼은 최대 60cm까지 이른다. 대부분 단독으로 생활하며 위험을 받을 때에는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다. 임신 기간은 약 15개월이며, 시국은 갈타했으나 추각과 장막은 매우 예민하다. 코블소 중 가장 서식수가 많은 종류이지만, 밀렵에 의한 감소는 제일 심각하다. 현재 검은코블소 3600마리가 야생에서 살고 있다.



9. 큰양늘래기 : 큰양늘래기는 머리에 혹이 나있는 점이 특이한 물고기이것이 '나물래종 보나파르르와 닮았다고 해서 '나물래종 피시'라는 이름이 붙은 물고기이다. 늘래기과에서도 몸집이 굉장히 크며 이빨도 단단한 것이 특징으로 이 단단한 이빨을 통해 갑각류, 불가사리, 연체동물, 성게를 깨 먹으며 때때로 작은 물고기를 섭취한다. 수명은 30 ~ 50년으로 어류 중에서 수명이 길고 공룡어류 중에서도 대형종에 속한다.



10. 지중해몽돌물범 : 지중해 연안에만 서식하는 물범의 일종으로, 모피 벗김이 유럽 수도승이 쓰는 고깔을 닮아 몽돌물범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휴양지 개발과 파고, 해양 오염, 모피와 고기를 목적으로 한 남획 때문에 수가 많이 줄어 현재 가장 심각한 멸종위기종에 놓여있는 포유류종 하나다. 생존을 위해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동굴을 서식지로 삼고, 현재 서식지 인근의 크기가 이미 작아져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잔존 개체수 추정치는 약 700정도이다.